

## 延世大學의 國際教育

朴 興 壽

(延世大 國際學大學院長)

### 1. 情報化·國際化시대로의 世界 變化

역사가들은 역사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징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지에 기반한 최초의 시대를 농경 사회라고 하고 증기 기관의 발명에 따라 생산력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진 시대를 産業社會라고 한다. 현대 사회를 여러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情報化·國際化 시대이며 이는 현 국제 사회에서 가장 요청되고 있는 두 가지 명제이기도 하다.

고대는 물론이고 중세 시대에도 교통 수단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여행하는 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20세기 초로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세계는 고대인과 중세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졌다. 21 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세계는 20 세기초보다도 더욱 가까워져 바로 이웃이 되었다.

즉, 情報化 社會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서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이동 및 정보 전달은 손쉬운 일이 되었다. 조금 전에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식간에 한국의 시골에서 자

세히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한쪽 끝에서 진행되는 축구 경기를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地球村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세계가 한 마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데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에 걸려서야 겨우 그 나라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반해서 오늘날에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로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 속에서 자리잡게 되는 것도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진다. 미국이나 파리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얼마되지도 않아 서울에서도 유행한다거나, 서울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역으로 미국이나 파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전달만이 아니라 文化의 傳達나 擴散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 2. 情報化·國際化社會 속의 大學의 發展方向

지구촌이 된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 국제화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과거와는 현격하게 다르게 세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한 문화권에서 이러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개인도 국가도 생존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대학에서의 연구·교육도 國際的인 學術 交流와 協力 없이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어느 시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文化的 流入과 傳達, 擴散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되는 문화 중에서도, 특히 敎育에 의해서 혹은 교육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문화는 가장 쉽게 받아들여졌다. 한 예를 들어, 신라 시대의 유학생들이 문화의 전달자였고 문화의 확산자였음은 우리의 지난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고 새로운 세계 思潮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후세에게 새로운 理想과 世界觀을 열어 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이 요청된다.

역사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과거로부터 연구되어 축적된 성과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가 지구촌화한 오늘날에는 역사적으로 앞선 시대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시대의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든 대학이나 연구자 개인은 이미 다른 대학의 연구 성과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사회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사회의 여러 분야나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 갈 수 없다. 정보화·국제화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學問의 世界에서도 相互依存의이고 有機的인 國際化의 틀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세기 대학은 '自治'가 이념의 근간이었고 근세의 대학은 '自由', 20세기의 대학은 '自治'와 '自由'를 근간 이념으로 하였다. 이제 21세기의 대학은 정보화·국제화 사회 속에서 University나 Multiversity로는 만족할

수 없는 Megaversity로 변환될 것이 분명하다.

### 3. 우리나라에서의 國際化 敎育의 當爲性

브리고개로 흔히 상징되는 빈곤의 시대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얼마 전에 서울의 국민학생들 중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한 학생이 상당히 있다고 하여 뉴스의 화제가 된 적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각종 경제 지표들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9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예측하기 전에 우리가 국제화와 관련하여 '80년대를 되돌아봐도 '80년대의 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이나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도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潛在的인 發展 可能性으로 인해서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라고 불리울 만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수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政治的인 安定, 經濟的 꾸준한 成長, 國民의 勤勉性, 國力의 增大 등은 차치하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나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여러 조건들을 세계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한국인 역시 세계의 정치·경제·과학·기술의 傾向이나 학문의 動向 등을 우리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하고, 아울러 세계 속에 한국의 모습을 널리 알리며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자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을 널리 양성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외국에 가서 수학하고 온 뒤로는 최소한 그나라의 文化와 經濟 狀況 등을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에 交流가 확대된 사례를 볼 수 있다. 세계 속으로도 약하고자 하는 21 세기의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 더 많은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듯이 외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韓國學을 교육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입장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 4. 延世大 國際學 教育의 沿革

한국에서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 시대를 겨냥한 學術 交流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특히 연세대는 국제 교류 활동에 있어 국내의 그 어느 대학에 못지않은 전통과 역량을 갖고 있다. 이미 1959년에 한국을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외국인 학생과 선교사, 외교관들에게 한국의 말과 글을 가르치고 아울러 한국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와 역사를 언어 교육의 범위 안에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어학당이 설립되었으며, 1969년에는 한국의 近代化 過程에서 필수적인 영어, 불어, 독어, 일어 회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외국어학당이 설립되었다.

연세대에서의 국제학 교육은 1962년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와 교환 교육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서독, 호주, 캐나다, 리비아, 중국, 소련을 비롯한 세계 10 개국 148 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그동안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류로 학문의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 왔다. 1962년에 해외 교포와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국제적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 최초로 國際教育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國際教育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대학내의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던 국제 교류 업무를 확대·개편하여 국제교육부를 창설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학대학원을 1987년에 개원하였다. 연세대가 세계 각국의 대학교와 체결한 교환 교육 협정은 다음과 같다.

- 1962. 3. 1.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와의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0.10.23. 일본 Keio 대학교와의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3. 미국 Oberlin 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7. 2.25. 서독 Lee 대학교 의과대학과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7.12. 1. 일본 동경치과대학과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8. 4.11. 미국 Bowling Green 주립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79. 8. 6. 미국 남가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0. 6.16. 일본 동경외국어대학교와의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1.11.19. 미국 Nevada 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2. 1.29. 리비아 Garionaus 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2. 3. 8. 미국 보스톤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2. 3.24. 호주 La Trobe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3. 7.1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3. 7.15. 미국 하와이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3. 9. 1. 국제교육부 창설
- 1984. 8.24. ISEP 가입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미국의 71개 대학)
- 1985. 1.24.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5. 1.24. 일본 Rikkyo 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5.10.17. 미국 브라운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5.11. 1. 부속교육기관 국제교육부(학부과정) 발족
- 1986. 2.18.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대학교의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6. 6. 6. 캐나다 Alberta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6. 8. 6. 미국 캘리포니아 9 개 대학교의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6.11.29. 국제학대학원 설립 인가
- 1986.12. 1. 미국 인디애나 대학과 교환교육 협정체결
- 1987. 2.27. 영국 Sheffield 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7. 8.25. 미국 시카고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7. 3. 1. 국제학대학원 개원
- 1987.10. 4. 서독 뮌헨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8.10. 일본 시마네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 1988.12. 중국 북경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1989. 7. 소련 동방학연구소와 교환교육협정체결  
 1989. 10. 소련 모스크바대학교와 교환교육협정체결

대학에 의해서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된 데 그 큰 의미가 있다.

## 5. 未修交國家 대학과의 國際學術交流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改革과 開放 政策에 뒤이어 동구 공산권 각국에서는 사실상 공산주의의 혁명이라고까지 할 만큼 革新的인 開放 政策을 취하고 있다. 얼마 전 이주의 자유를 허용한 동독을 비롯하여 헝가리 등의 동구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폐쇄를 해제하고 새로이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거세게 불고 있어 공산권 국가에서 기존 체제의 개혁과 개방은 시대적인 대세인 듯싶다. '8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속에서 독자적인 자주 외교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지양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세계적인 개방화 조류, 정부의 對共産 國 交流 政策들과 함께 본교는 미국, 일본 등 수교 국가외에도 미수교 국가와의 국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관계 개선이 없는 미수교 국가와 1차적으로 문화·학술면에서 교류를 진행한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의 交流 現況으로도 국내에서는 단연 선두인 연세대는 미수교 국가 대학들과의 學術 協力에서도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현재 交換 協定을 체결한 미수교국 대학은 중국의 북경대학교, 소련의 동방학연구소 그리고 소련의 모스크바대학교 등이다.

특히 한국의 오천 년 동안의 역사상 중국과는 많은 교류가 있었지만,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도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여 겨우 1884년에 한·소 통상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그것마저도 1904년의 소·일 전쟁으로 인하여 폐기된 후 지난 '8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의 동방학연구소를 비롯하여 모스크바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협정 체결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소련의 대학 및 연구소와 체결한 학술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政府 次元의 交流가 없었던 지난 '85년만에 최초로 民間

## 6. 國際教育部

연세대에서 추진하는 국제 학술 교류의 본산인 국제교육부는 외국인 학생 및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1983년 9월에 설치되어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學部課程

이는 단기 유학의 성격을 지닌 학부 정규 과정으로서 아시아학 및 한국학에 관해서 정규 과정으로 매학기 강의가 실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교육부 및 연세대 정규 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돌아간 외국 학생 및 교포 학생이 1984년 13명, 1985년 27명, 1986년 49명, 1987년 100명, 1988년 126명, 1989년 1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 國際學術交流(交換學生制度)

이는 본교가 미국의 브라운대학을 위시한 세계 10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서독, 호주, 핀란드, 리비아, 중국, 소련)에 걸쳐 140여 개의 대학과 학생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 학생은 본교에 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만으로도 교환 대학에서 최고 35학점까지 취득하여 본교에서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84~'85학년도에 외국 학생 5명과 연세대 학생 3명, '85~'86학년도에 각각 13명과 14명, '86~'87년도 31명과 24명, '87~'88년도에는 70여명과 50여명이 서로 교환되어 상대방의 학교에서 1년씩 유학한 바 있다. 또한 '87학년도 2학기부터는 국제학대학원의 학생들도 교환 학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학부와는 달리 최고 9학점까지 학점 교환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3) 國際夏季大學

1985년 여름 학기부터 시작한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는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심어 주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한국의 세계적 위치를 이해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년 전에 불과 4명의 외국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국제 프로그램이 국제하계대학 실시 첫 해인 '85년에는 61명, '86년 210명, '87년 296명, '88년 420명, '89년에는 510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향후의 국제하계대학은 급증하는 외국인들의 한국학 단기 수학 과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리라 생각된다.

국제하계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과 교포 학생들의 이해를 도도하기 위해 한국학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 현장 답사(field trip), 단기 기업 연수(business internship), 인론 기관 연수(journalism internship)와 같은 특수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강의 일정은 1989년도의 경우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6주 동안에 한 학기 동안 이수할 내용을 수업하게 된다.

## 7. 國際學大學院

國際化 時代와 情報化 社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연세대가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연세'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설립을 추진해 온 국제학대학원이 1986년 11월 29일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1987년 3월에 문을 열었다.

### 1) 設立 趣旨

국제학대학원은 基督敎 精神에 입각하여 民主 國家 發展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인류 공영의 理想 實現에 기여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을 취지로 설립되었다. 국제학대학원은 地球村化되어 가는 국제 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여 세계 각국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여 이를 수렴하고,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外國의 人材들을 수용하여 한국학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國內 高級人力을 양성하는 등 내·외국인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참모습을 세계에 전파하고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그 설립 취지로 한다.

### 2) 現況

지역학으로서의 아시아학 및 국제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제학대학원은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하는 특수대학원인데, 아시아 학과의 한국학 전공 및 동아시아학(중국학, 일본학) 전공과 국제학과의 경제학 전공, 경영학 전공, 정치학 전공, 행정학 전공 등 모두 2개 학과 6개 전공이 개설되었다. 주간 대학원인 국제학대학원의 履修 年限은 4학기이며, 인원에 있어서는 각 전공마다 14명씩 모두 84명을 국내 학생의 정원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유학 온 100여명의 학생들과 같이 영어로 수강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 3) 敎科目

각 전공 분야의 교과목은 아시아 학과의 경우 <한국어학사>, <한국문학사>, <한국민속학>, <한국철학사>, <한국의 경제사상> 등을 비롯한 한국학 과목 30여개와 <일본경제사>, <일본의외세미나>, <일본의 전통사회론>, <중국지성사>, <유교서지학>, <내륙아시아사> 등의 동아시아 학과목 30여개이다. 국제학과의 경우는 <자원경제론>, <국제금융론>, <국제회계론>, <북한정치세미나>, <현대정치사상론>, <현대사회와 조직론>, <정책분석론> 등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을 합쳐 약 60여개의 과목이 있다.

### 4) 講師 構成

강사진은 연세대의 교수진과 초빙 외국인 교수 그리고 국내 다른 대학의 각 분야 전문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용 인원이 100여명을 상회하고 있어 강의와 연구 지도에 부족함이 없으며,

교원의 질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학기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유명 대학에서 초빙되어 오는 외국인 교수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5) 在學生

1989년 9월 현재 국제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한국학 전공 10명, 동아시아학 전공 14명, 경제학 전공 9명, 경영학 전공 18명, 정치학 전공 22명, 행정학 전공 15명 등 모두 88명이며 여기에 외국 학생을 합하면 모두 180명이 된다.

#### 6) 向後 發展을 위한 몇 가지 課題

현재 국제학대학원은 6개 분야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역학 분야는 한국, 중국, 일본학 등 3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3개의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관한 특수 전공도 개설될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으며, 현재 국제학대학원은 석사과정밖에 없는 특수대학원인데 향후 학부과정과 박사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자체적으로 국제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학연구소로서 발전 가능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교환 교수제의 확대 도입은 국제학대학원의 특성상 필수적인 요소이고, 국제학대학원의 외국 학생을 더욱 확대할 필요도 있다.

### 8. 現下 國際教育의 當面課題

'80년대 들어서 많은 대학이 연세대 국제교육부와 유사한 성격의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國際化 時代의 學術 交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國際 學術 交流에 맞추어서 현재의 국제교육 및 국제 학술 교류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

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제 학술 교류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 교수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50년대나 '60년대에 선진국에서 제공한 장학금으로 외국에서 수학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몇 십 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의 중추 세력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이 있음으로써 외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장학금을 수여한 선진국의 입장에서든 투자한 지 몇 십 년이 지난 오늘날 자국과 개발 도상국의 經濟的인 側面이나 經濟 外的인 側面에서 많은 交流가 가능한 것도 자국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반듯을하려는 지금 후진국의 인재를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국의 인재들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에서 한국학을 교육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둘째로 한국학을 세계 각국으로 전파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첫번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세계 각국에 한국문화원이나 한국학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국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면 세계 유수의 대학에 한국학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미수교 국가와의 학술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교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먼저 文化·學術의 交流로부터 시작된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은 나라들, 특히 공산권 국가와의 정식 수교가 어려운 형편에서 우선적으로 대학간의 학술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인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래의 동량을 가르치는 곳인 각국의 대학이 이러한 임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